

신안 '흑산도 홍어' 명성 흔들린다

고수온에 어획량 군산에 뒤져 충허용어획량 서해안 전역 확대 치어 싹쓸이 그물 조업 규제 없어 서식 생태계·유통 시장 대혼란



신안수협 지도읍 송도 위판장에서는 흑산도 등에서 잡은 홍어는 물론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등에서 잡힌 홍어도 위판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 흑산도 홍어의 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홍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충허용어획량 제도를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실제 조업 시 사용하는 그물방식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6일 흑산도 홍어잡이 어가에 따르면 전북 군산, 충남 태안 지역의 경우 유자망(홀림걸그물)을 사용해 홍어를 조업하다 보니 홍어 새끼(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어민이 배정된 조업 물량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변형 어구를 사용해 홍어 유통·생태계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대해 흑산도 홍어잡이 어가들은 홍어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유자망 등 불법 변형 어구 사용을 규제하는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어는 수온이 상승하면 군산, 충남 태안을 거쳐 인천 대정도 해역까지 북상 후 겨울철 다시 남쪽 신안 흑산해역으로 이동한다.

지난달 28일 신안수협 지도읍 송도 위판장에서는 충남 태안, 군산 등에서 잡힌 홍어 2000마리(20t 상당)가 위판됐다.

홍어를 마리 단위로 단가를 책정하는 다른 지역 수협과는 달리 신안수협 송도위판장에서는 kg 단위로 위판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더 반기 위해 송도 위판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총 어획량 제한이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됐으나

다른 지역에서 잡은 홍어가 버젓이 신안에서 위판되고 있는 점을 놓고 흑산도 홍어 조업 어가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홍어 조업 때 사용하는 그물을 문제 삼고 있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이승호 씨는 "흑산도에서는 주낙 방식으로 홍어를 잡는 반면에 군산, 태안 지역에서는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홍어 새끼(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고 있어 머지않아 홍어 어족 자원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어는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충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대상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충허용어획량 적용 해역을 군산을 포함한 서해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연간 전체 홍어 어획량은 3668t으로 정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로 시

도 배정 물량은 전북이 1351t으로 제일 많고 전남 731t, 충남 729t, 인천 251t, 경남 81t, 부산 64t, 제주 33t 순이다.

현재 흑산도 산지 홍어의 경우 지난 1년간 8kg 기준 30만~5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으나 올해 1월 기준 10만원대로 가격이 내려간 상태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홍어 생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와 홍어 열기 학교 등을 운영 중이다.

흑산도 홍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안전한 대처로 흑산도 홍어의 명성이 휘청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고흥군, 설 명절 생활 쓰레기 수거 특별 관리

상황실 가동·특별 수거반 운영

고흥군이 '설 명절맞이 생활 쓰레기 수거 특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설 연휴 기간 선물 포장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생활 쓰레기 상황실 가동 및 24시간 소각시설 운영과 지역별 대대적 환경정비, 명절 분리배출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및 단속강화 등을 실시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9일과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설날인 10일과 11일에는 생활 쓰레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거일에 맞춰 전일 야간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설 명절 연휴 기간동안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올바른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나주시보건소가 나주시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해 주민 자살예방을 위한 약국과의 협력사업인 생명사랑 실천약국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생명 지키기 실천' 전체 약국으로 확대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 협력

나주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생명사랑 실천약국을 전체 약국으로 확대한다.

나주시는 생명사랑 실천약국사업 협력 범위를 지역 전체 약국으로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자살 예방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실천약국은 주민과의 접근성, 전문성을 갖춘 약국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나주시 보건소는 지난 3일 나주시약사회와 간담회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생명사랑 실천약국을 기존 39곳에서 전체 약국 50곳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전체 약국이 참여한 것은 전남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역 전체 약국이 참여하기까지 나주시보건소는 국내 심각한 극단적 선택(자살) 문제 현황을 약사들에게 알리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약사회 관계자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이나 자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적극 연계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보건소는 생명사랑 실천약국과 함께 자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동네의원 마음이음,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백신특구 화순이 바이오 특화단지 최적지"...성공유치 결의 다졌다

화순군 200여명 카드 퍼포먼스

화순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5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구북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200여명은 이날 '바이오 특화단지, 최적지는 전남 화순'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들고 성공 유치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한 인허가 처리는 물론, 용적률 상향, 세액 공제, 정부 R&D 우선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가 위치한 화순군은 백신, 면역세포치료 중심 첨단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강점으로 활용해 특화단지 유치가 유리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10년 백신산업특구 지정 이후 20여 년간 신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화순군이 지난 5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대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 성공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화순군 제공>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전남바이오진흥원 생물약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 GC녹십자 등 15개 지원기관과 33개 기업이 집적화돼 산·학·연·병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위

해 군민,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각 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화순군이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거듭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양시 청년단체 지방보조사업자 40명 교육

광양시는 최근 성황스포츠클럽에서 청년단체 지방보조사업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 1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역량 강화와 보조금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사업의 개요 및 추진 흐름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관리 ▲보템 시스템 사전 안내 ▲정령 교육 ▲감사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의 도입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민간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해도를 높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보화교육장에서 보템 시스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1110 | TEL 0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